

# 牛島誌

牛島誌編纂委員會

# 牛 島

문 총 성

내 소년의 가없는 꿈  
내 친구가 태어난 곳  
날마다 눈부시게 떠오르는 해를  
한라산 우러러  
뜻을 세워 뜻 키우며  
제주시로 서울로 미국으로 떠돌았으리  
70년대 자연호가 건조되어  
우도 ↔ 성산포 취항때  
가자였던 나는 가서 보았네  
내 혼 깊은 곳에서 찬란하게  
떠오르던 해돋이여 목마름이여  
샘물이 없어 향시 목 마르던 섬 사람들  
가난과 한숨 속을 하얗게 내달리며  
저마다 가슴 속 깊숙이 우물을 파고  
이젠 저마다 풍요로운 삶 일궈사느니  
햇빛과 바람과 순박한 섬 사람들 파뚝소리  
열 닷새 달 그림자로 열리는  
우도 팔경이여 머흠머흠 혼을 흔들어  
때로 불면의 밤 깊어가느니  
사회와 가정과 생활  
꿈 속을 떠도는 이들이여  
어디에 살아도 고향 그리움 속을 떠돌다  
마침내  
한번씩 죽을 때 비로소  
고향으로 돌아가느니

祝牛島面黃腹赤  
禧

年豐人樂

一九九五年春  
北海





# 牛島全景



□ 위치 : 大韓民國 濟州道 北濟州郡 東經 126° 58' 北緯 33° 29'

□ 면적 : 6.05㎢(농경지 4.30㎢(71%), 대지 0.34㎢(6%), 임야 0.91㎢(15%)) □ 행정구역 : 4개리(12개 자연마을, 24개반)

□ 가구 : 605가구(농어가 582, 비농어가 23) □ 인 구 : 1,995명(남 941, 여 1,054)

□ 도로 : 총연장 63.4km(포장 35.5(56%), 비포장 27.9(44%)) □ 교 통 : 도항선 3척, 자동차 146대

# 牛 島 歌

沖庵 金淨 (1486~1521)

瀛洲東頭鰲抃傾  
群仙上訴攝五精  
雲開霧廓忽湧出  
溟濤崩洶嚙山腹  
稜層鏤壁錦纈殷  
繁珠凝露濺輕濕  
瓊宮淵底不可見  
軒轅秦樂馮夷舞  
完虹飲海垂長尾  
曉珠明定塵區黑  
驂蚪踏鱗多娉婷  
幽沈水府囚百靈  
仇池禹穴傳神跡  
蘭橈拏入懽神形  
水湧雲溟悄愁人  
嗟我只道隔門限  
千年閃影涵重溟  
夙鼎一夜轟雷霆  
瑞山新畫飛王庭  
谿谿洞天深雲扃  
扶桑日照光晶瑩  
壺中瑤碧躔列星  
有時隱隱窺窓櫺  
玉簫竽窳來青冥  
羸鵬戲鶴飄翎翎  
燭龍爛燁雙眼青  
天吳九首行鈴珮  
太陰之窟玄機停  
惜許絕境訛圖經  
鐵笛吹裂老蛟聽  
歸來悅兮夢未醒  
安得列叟乘風冷  
(濟州風土錄 중에서)

馬 點 島 牛



壬子七月十三日  
 中霽  
 謹義無益  
 牧子保八并二十三  
 馬二百六十二匹

## 海女 의 노래



故 康 寬 順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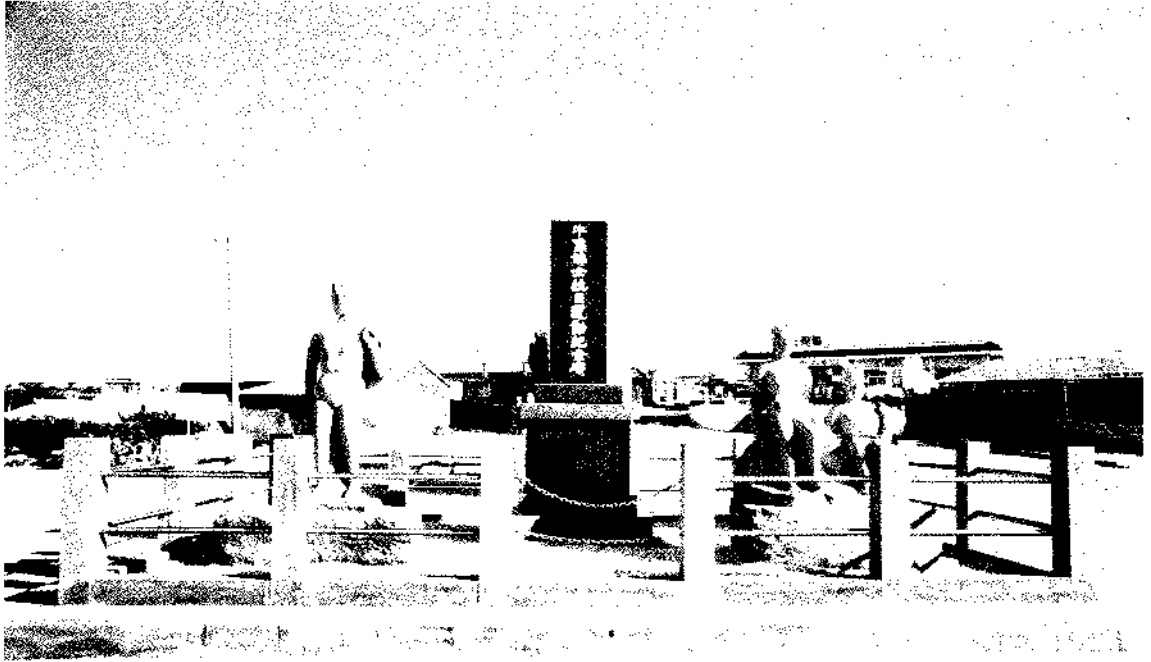
우리들은 제주도의 가엾은 해녀들  
비참한 살림살이 세상이 안다  
추은날 무더운날 비가오는 날에도  
저바다 물결위에 시달리는 몸

아침일찍 집을 떠나 황혼되면 돌아와  
어린아이 젓먹이며 저녁밥 짓는다  
하루종일 해봤으나 버는 것은 기막혀  
살자하니 한숨으로 잠못이룬다

이른봄 고향산천 부모형제 이별하고  
온가족 생명줄을 등에다 지어  
파도세고 무서운 저바다를 건너서  
기울산 대마도로 돈벌이 간다

배움없는 우리해녀 가는 곳마다  
저놈들의 착취기관 설치해 놓고  
우리들의 피와 땀을 착취하도다  
가엾은 우리해녀 어디로 갈가

# 牛島海女抗日運動紀念碑



## 취지문

한일합방이라는 미명하에 일본제국주의자들은 36년간 우리들의 국권을 침탈하고 우리들을 노예로 만들어 혹사함은 물론 민생을 도탄속에 빠지게 하므로써 천추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한을 남겼다.

일제는 개주도사를 경찰서장 및 어업조합장직을 겸직케 하고 일본인 또는 그들의 앞잡이에게 해산물 상매에 따른 상권을 갖게하여 계획적이며 조직적으로 해녀들의 해산물판매권을 독점하고 수탈을 다반사로 자행하였던 바 불공정행위를 근절케 하고 해녀 스스로의 권익을 회복코자 혼연히 껴끼하여 전개한 운동이 해녀투쟁운동인 것이다.

이 투쟁운동은 구좌읍 세화리에서 전개는 하였으나 그 실은 이 운동의 주체적인 핵심인물이 우리 고장분들이요 참가해녀 또한 우리 고장해녀들이 대종을 이루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다수의 주동인물이 체포되어 옥고를 치루기도 하였다. 구속된 인사중 전홍동 출신 강관순씨는 옥중에서 해녀들의 한맺힌 사연을 노래로 만들어 그 시절 해녀들에게 널리 보급하여 항일투쟁의식을 고취하여 민족정기를 굳게 하였다.

이에 본추진위원회는 위와같은 사항을 들어 그 시대 우리 고장해녀들의 굳센 생활의지력과 항일투쟁의 투혼을 기리고 더불어 해녀의 노래비와 해녀상을 세워 후세에 전승함은 물론 영원히 기념하고자 노래비 및 해녀상 건립을 추진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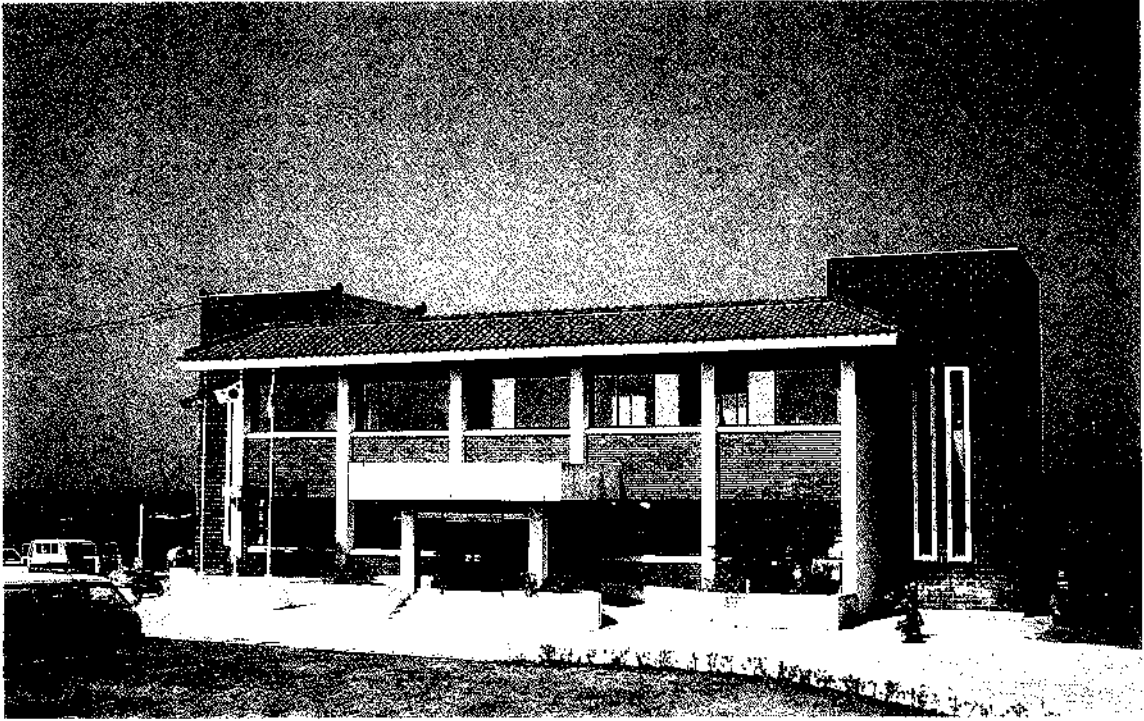
1995년        월        일

해녀비 및 해녀상 건립 추진위원회

위원장 신 인 홍

## 管内主要機關一覽

### □ 牛島面事務所



### 연혁

- 1702(숙종 28년) : 국유목장
- 1842(헌종 8년) : 입경허가
- 1844(헌종 10년) : 김석린 진사 일행 입도
- 1900(경자년) : 향교훈장 오유학선생이 연평으로 명명
- 1927(정묘년) : 행정구역 연평리 2개구(1구, 2구)로 분구
- 1931(신미년) : 2개구를 연평리로 통합 이장제 부활
- 1951. 7. 1 : 구좌면 연평출장소 설치
- 1980. 12. 1 : 구좌읍 연평출장소
- 1986. 4. 1 : 복제주군 우도면 승격(4개계, 정원 15명)
- 1986. 4. 1 : 초대면장 김항운
- 1995. 7. 25 : 2대면장 원복연
- 1996. 5. 10 : 3대면장 고창도(현)

□ 天 津 里



▲ 동천진동

서천진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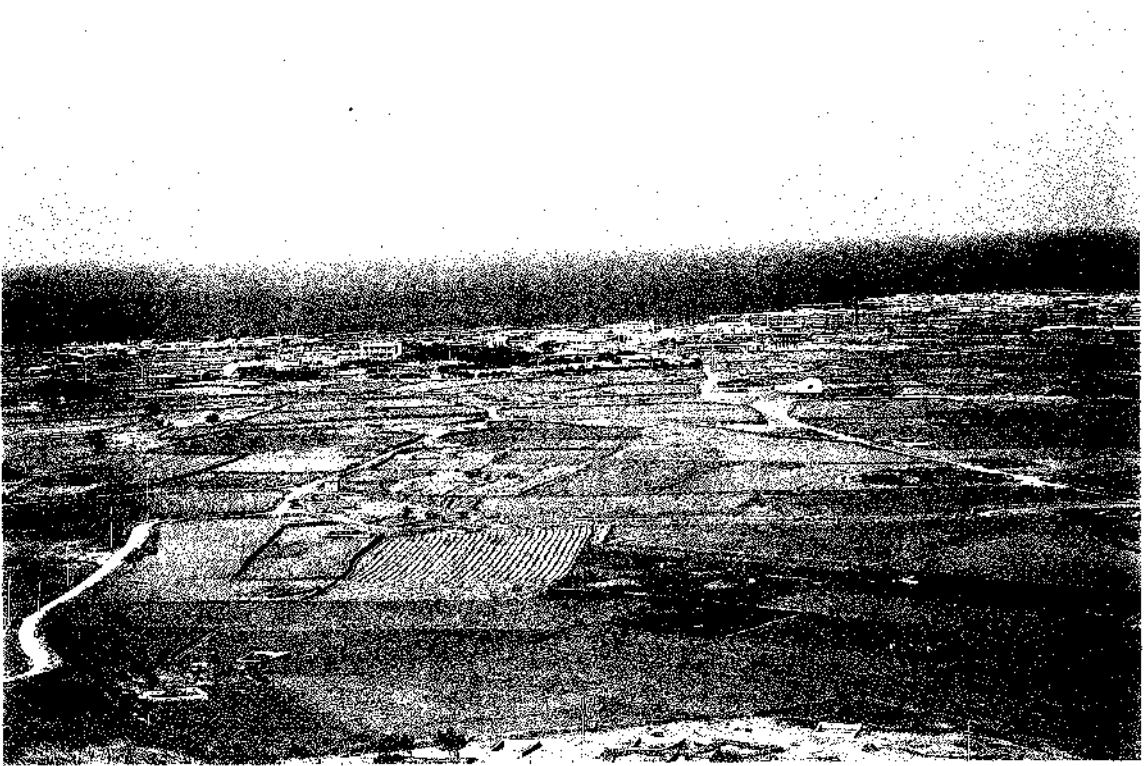
◀ 이사무소

□ 천진리사무소 □

- 위치 : 우도면 천진리  
1784-1

- 1986. 4. 1 이사무소 개소
- 초대이장 呂達鉉
- 2대이장 高舜煥
- 3대이장 尹敬植(현)

□ 西 光 里



▲ 서광리전경

▼ 이사무소



□ 서광리사무소 □

- 위치 : 유도면 서광리  
2173-1

○ 1986. 4. 1 이사무소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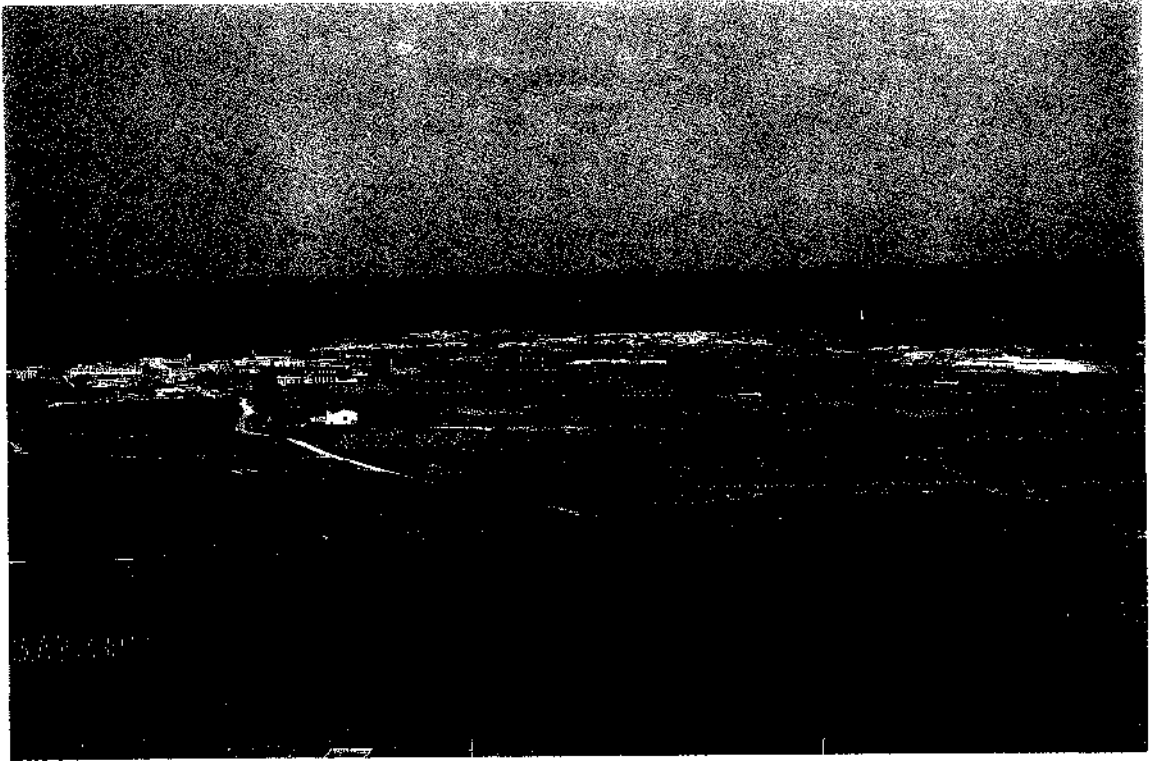
○ 초대이장 康淳一

○ 2대이장 吳宗英

○ 3대이장 鄭滿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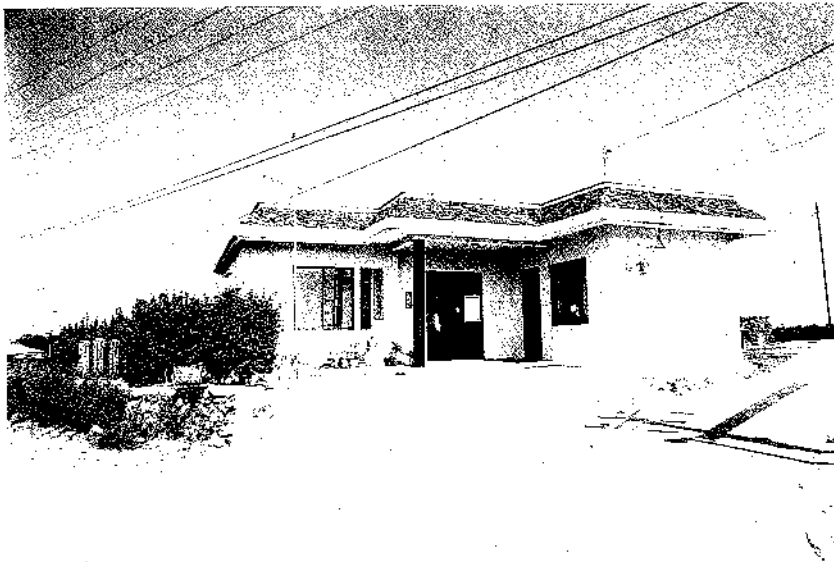
○ 4대이장 金勝泰(현)

□ 五 逢 里



▲ 오봉리전경

▼ 이사무소



□ 오봉리사무소 □

- 위치 : 우도면 오봉리  
1011-1

○ 1986. 4. 1 이사무소  
개소

○ 초대이장 姜哲石

○ 2대이장 高豪秀

○ 3대이장 韓斗英

○ 4대이장 高財秀 (현)

□ 朝 日 里



▲ 조일리전경

▼ 이사무소



□ 조일리사무소 □

- 위치 : 우도면 조일리  
118-4

○ 1986. 4. 1 이사무소  
개소

○ 초대이장 韓斗京

○ 2대이장 金景贊

○ 3대이장 高昌植

○ 4대이장 呂完炯

○ 5대이장 金榮澤 (현)

□ 演坪中學校



▼ 학교입구

▲ 전 경



▼ 국민교육헌장탑



□ 연 혁 □

- ▶ 1954년 5월 22일 연평중학교 설립인가(3년제 3학년)
- ▶ 1954년 6월 16일 연평국민학교장겸 연평중학교 교감 고태주 선생 부임
- ▶ 1954년 6월 20일 개 교
- ▶ 1957년 1월 21일 초대교장 김두봉 선생 부임
- ▶ 1979년 12월 26일 학칙변경으로 6학년 중실인가
- ▶ 1984년 12월 20일 본관건물 6실 신축(현위치)
- ▶ 1993년 3월 1일 3학년 편제
- ▶ 1996년 2월 9일 제40회 졸업식(졸업생총수 2,327명)
- ▶ 1996년 3월 1일 제26대교장 현상운 선생 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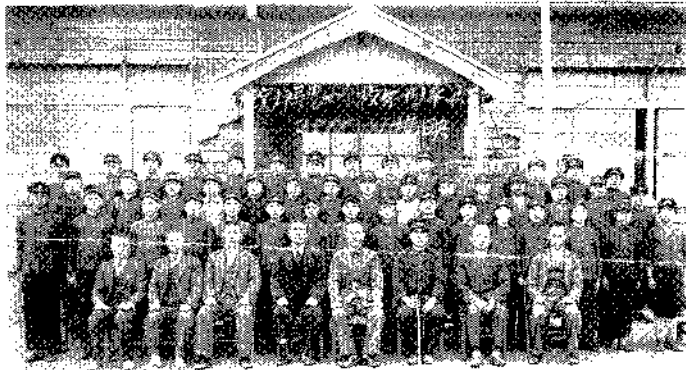
□ 演坪初等學校



▼ 학교입구



▼ 시립연평심상소학교 제1회 졸업기념사진



□ 연 학 □

- 20. . 영명의숙 개설(김삼웅, 고태주)
  - 29. 5. 10 영명서당 인가
  - 29. 5. 15 개교(설립자 김운옥)
  - 36. 1. 16 연평시립보통학교 인가  
동년 4월 1일 개교(4년제)
  - 38. 4. 16 연평심상소학교로 개칭  
(4학급, 설립자 전인홍)
  - 39. 3. 25 제1회 졸업생 51명 배출
  - 41. 4. 1 시립 연평국민학교로 개칭  
(6년제, 6학급 인가)
  - 45. 10. 1 연평 공립 국민학교로 개칭
  - 50. 6. 1 연평국민학교로 개칭
  - 81. 3. 10 병설 유치원 개원
  - 85. 3. 2 특수학급 1학급 신설
  - 95. 3. 1 7학급 인가(특수학급 포함)
  - 96. 3. 1 연평초등학교로 개칭
- 제58회 졸업(1996. 2. 15) : 졸업생 4,090명

□ 濟州警察署 牛島派出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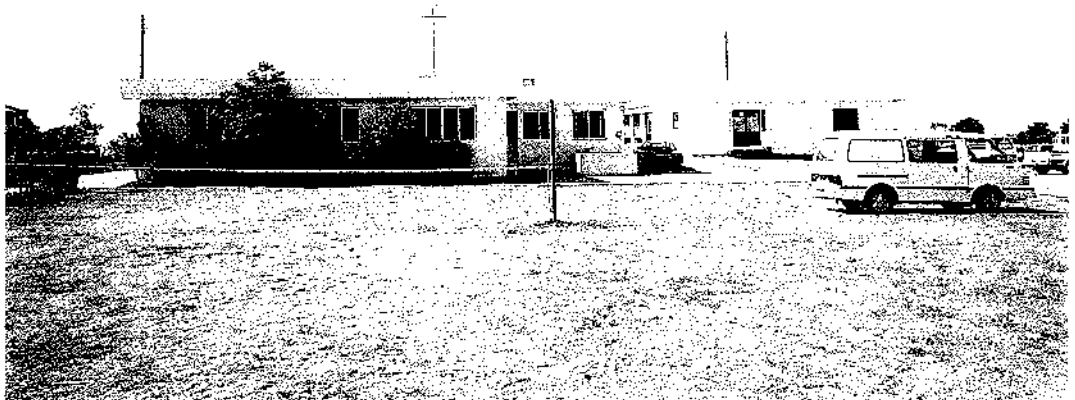


우도면 천진리 1675-8

□ 연 혁 □

- 45. 10. 제주경찰서 우도경찰관 파견소 신설
- 48. 3. 제주경찰서 우도지서로 개칭
- 49. 4. 성산포경찰서 신설과 동시 성산포경찰서 우도지서로 개칭
- 54. 10. 우도출장소로 개칭
- 56. 12. 우도출장소 폐지. 구좌 지서 관할에 편입
- 56. 12. 우도출장소로 재복귀
- 57. 7. 성산포경찰서 폐지와 더불어 제주경찰서 관할
- 75. 10. 30. 제주경찰서 우도출장소를 우도지서로 개칭
- 86. 4. 1. 우도면 승격
- 95. 1. 1. 우도지서를 우도파출소로 변경

□ 北濟州郡保健所 牛島保健支所



우도면 서광리 1451-3(1990년 1월 개소)

□ 濟州 牛島郵遞局



□ 연 혁 □

- 79. 12. 29 세화우체국 우도  
분국 개국
- 82. 4. 12 우편집배업무  
개시  
    " 우도-상산포간  
    인부운송선로  
    개설
- 83. 8. 16 집배구 신설
- 87. 12. 17 제주 우도우체국  
으로 승격

□ 韓國電力公社 濟州支社 牛島駐在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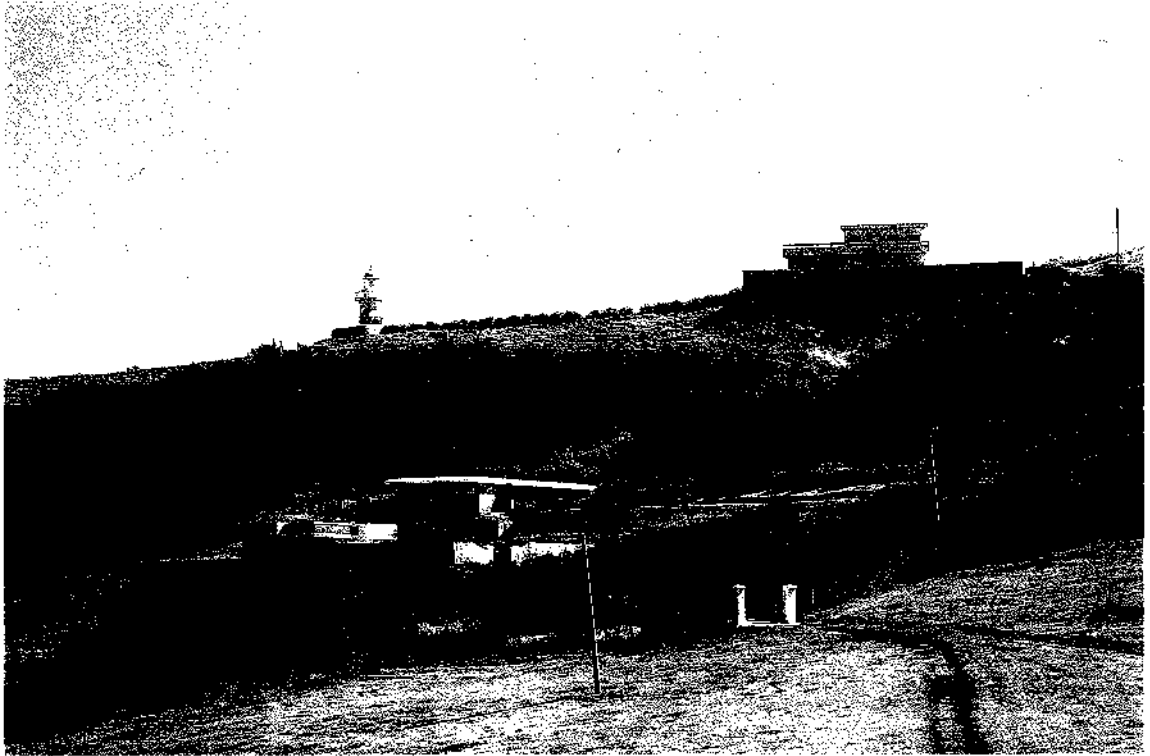


□ 연 혁 □

- 1984. 1. 20 신설
- 초대소장 김명호
- 2대소장 김봉건
- 3대소장 김관우
- 4대소장 오남석
- 5대소장 이병찬
- 6대소장 고시경(현)

우도면 서광리 1458-13

□ 濟州地方海運港灣廳 牛島港路標識管理所



우도면 조일리 산 18



□ 연 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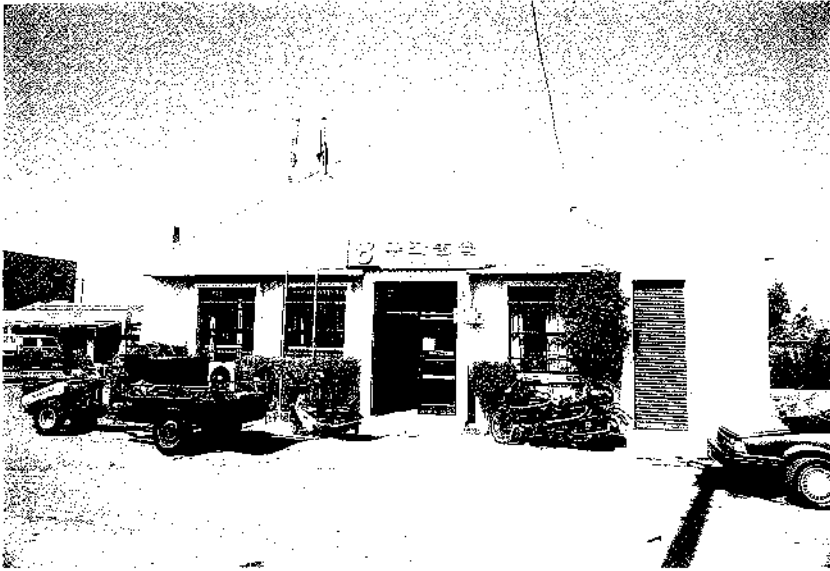
☒ 기구(등대 소속기관)

- 1906. 12 : 대한제국 세관공사부 등대국
- 1946. 11 : 운수부 해상운수국
- 1948. 11 : 교통부 해운국
- 1955. 2 : 해무청 시설국
- 1961. 10 : 교통부 제주지방 해운국
- 1976. 12 : 제주지방해운항만청 우도항로표지관리소

☒ 시 설

- 1906. 3 : 등대 초점등(무인등대, 아세찌링가스등)
- 1959. 9 : 유인등대로 개량
- 1960. 3 : 광파표지 개량(DCB24형 설치)
- 1960. 3 : 음파표지 설치(에어싸이렌)
- 1981. 12 : 등대시전(AC전원)인입

□ 舊左農協 牛島支所



우도면 서광리 1404-8

□ 연 혁 □

- 62. 2. 23 연평리(동) 농업협동조합  
설립
- "    초대 고성화 조합장  
    취임
- 65. 8. 24 2대 강용진 조합장 취임
- 72. 7. 4 3대 김향길 조합장 취임
- 73. 8. 29 연평 단위 농업협동조합  
으로 개칭
- 77. 3. 1 구좌단위농업협동조합과  
합병, 연평분소 개점
- 82. 5. 1 자기앞수표 취급
- 87. 2. 9 연평분소를 우도분소로  
개칭
- 87. 2. 16 환입무 취급
- 89. 4. 1 구좌농업협동조합 우도  
지소로 개칭
- 90. 6. 25 온라인 업무 취급
- 95. 3. 9 윤철호지소장 부임

□ 濟州市水協 牛島出張所



우도면 서광리 1404-7

□ 韓國通信 城山浦電話局 牛島分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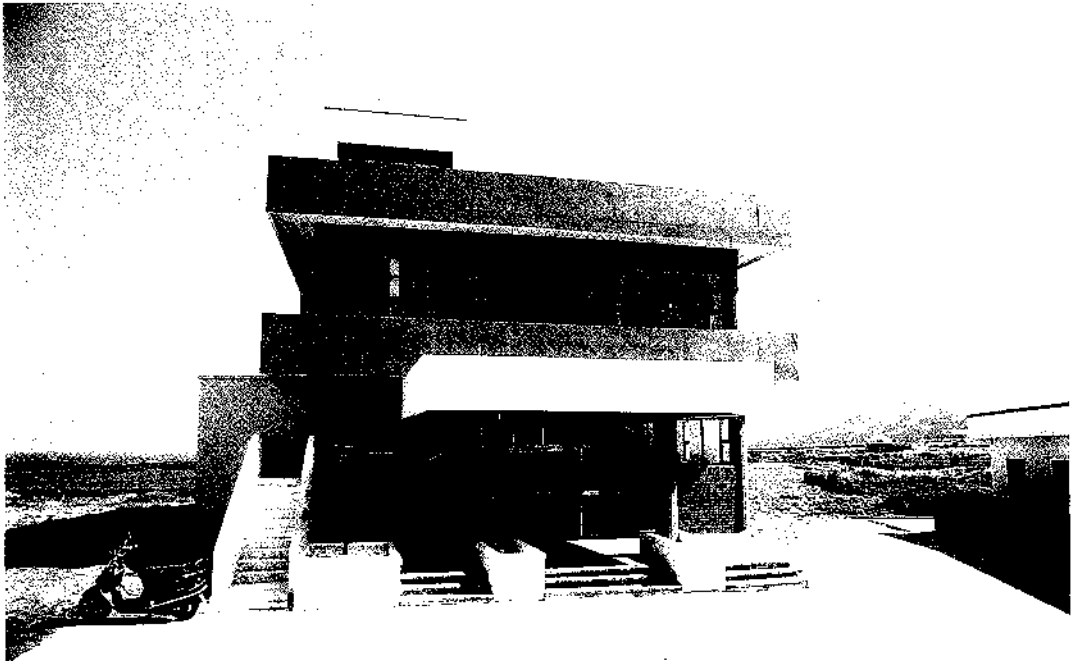


□ 연 혁 □

- 75. 1. 1 제주전신전화국 우도분국 신설
- 79. 5. 30 이동단위 전화 1회선 운용
- 79. 12. 29 세화우체국 우도분국으로 개편
- 82. 1. 1 한국전기통신공사 발족, 성산포본실로 흡수
- 84. 1. 1 한국통신 성산포전화국 우도분국으로 개편
- 93. 10. 30 자동식 100회선 증설 (총 740회선)
- 96. 현재 668가입자, 공중전화 18대, 전용회선 41회선

- 1992년 1월 개관 -  
 현재 청소년수련실, 면개발자문위원회, 면바르게살기위원회, 면새마을협의회(부녀회포함), 우도면청년연합회, 새마을문고및예식장으로이용

□ 牛島面 福社會館



우도면 서광리 1393-1

□ 大韓老人會 北濟州郡支會 牛島面 老人亭



우도면 서광리 1404

우도노인회

- 고 문 우봉수, 정찬경, 우봉호
- 회 장 신인홍
- 부회장 윤수남, 고태건
- 감 사 김군선, 정한준
- 총 부 오영돈

이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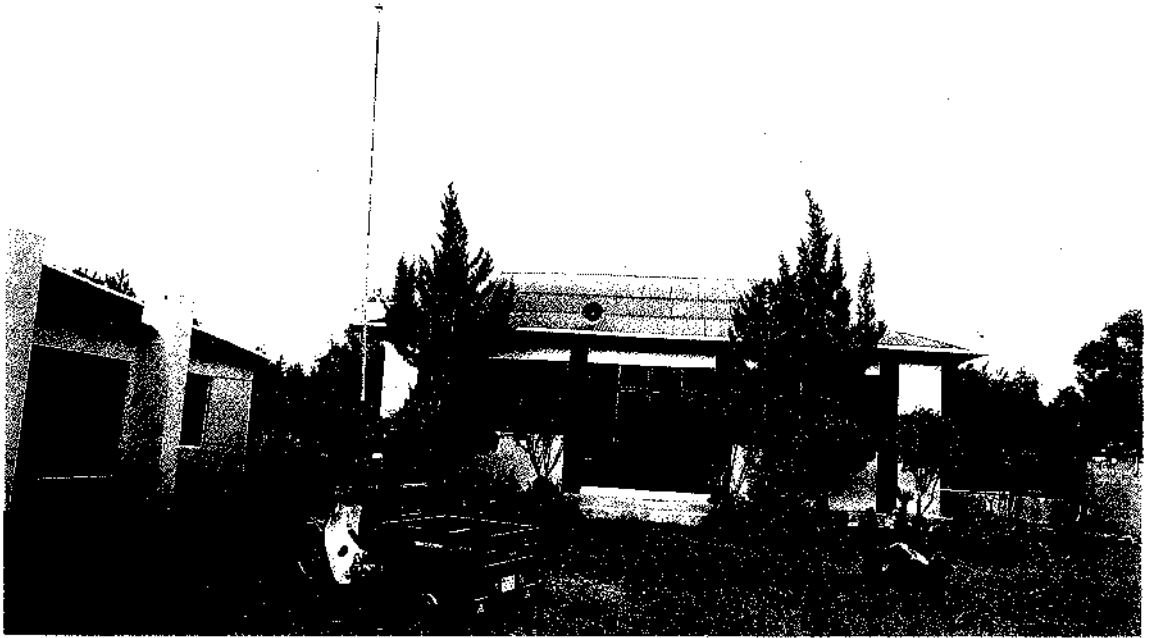
강상철, 이기환, 김항욱, 우두석, 김창백  
 김계환, 김태수, 공내수, 김용교, 고봉필

\* 연혁 및 활동

- |  |  |
|--|--|
| <p>92. 1월. 우도면 노인정 인가<br/>       8월. 어린이충효교실 4개 이사무소 실시</p> <p>93. 2월. 학생선행상 시상 중 1, 초등 1명<br/>       7월. 우도면 전 가정에 국기보급 700매<br/>       8월. 어린이충효교실, 우도면 복지회관<br/>       8월. 효자상추천 복제주지회장상 시상</p> | <p>93. 10월. 장수노인위문 남 6, 여 1<br/>       12월. 겨울충효교실, 우도면복지회관</p> <p>94. 2월. 학생선행상시상 중 1, 초등 1<br/>       ○ 수국묘목파종, 도로변<br/>       ○ 약초시험재배<br/>       ○ 가훈제작 6편출품 지회 입상</p> <p>8월. 충효교실, 복지회관</p> |
|--|--|

## 宗 教 團 體 一 覽

### □ 대한불교 태고종 금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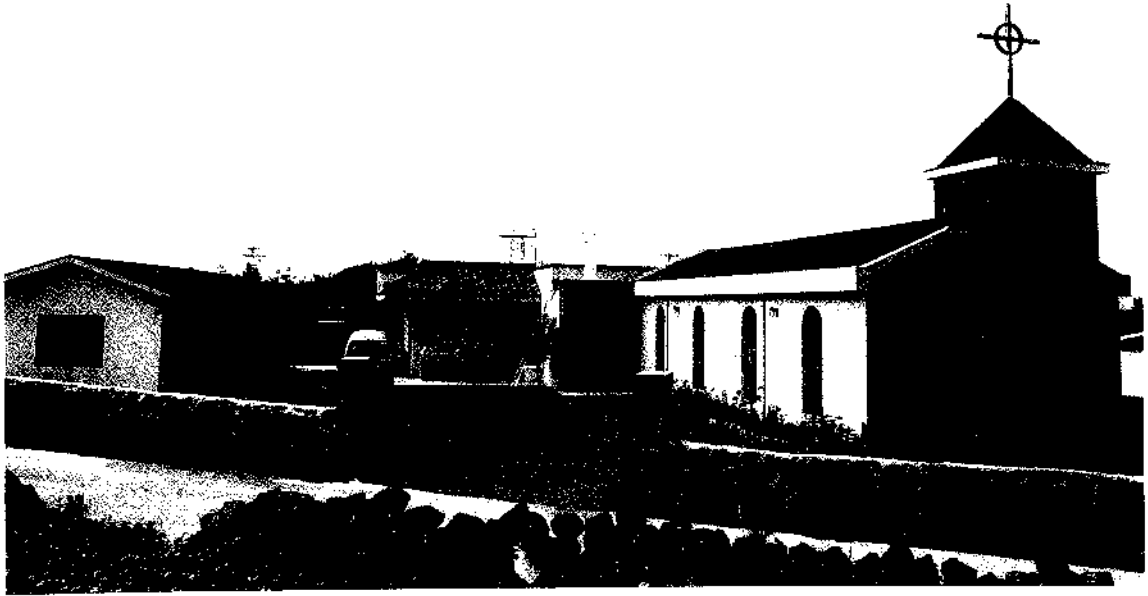
### □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우도 수덕사



〈宗教團體一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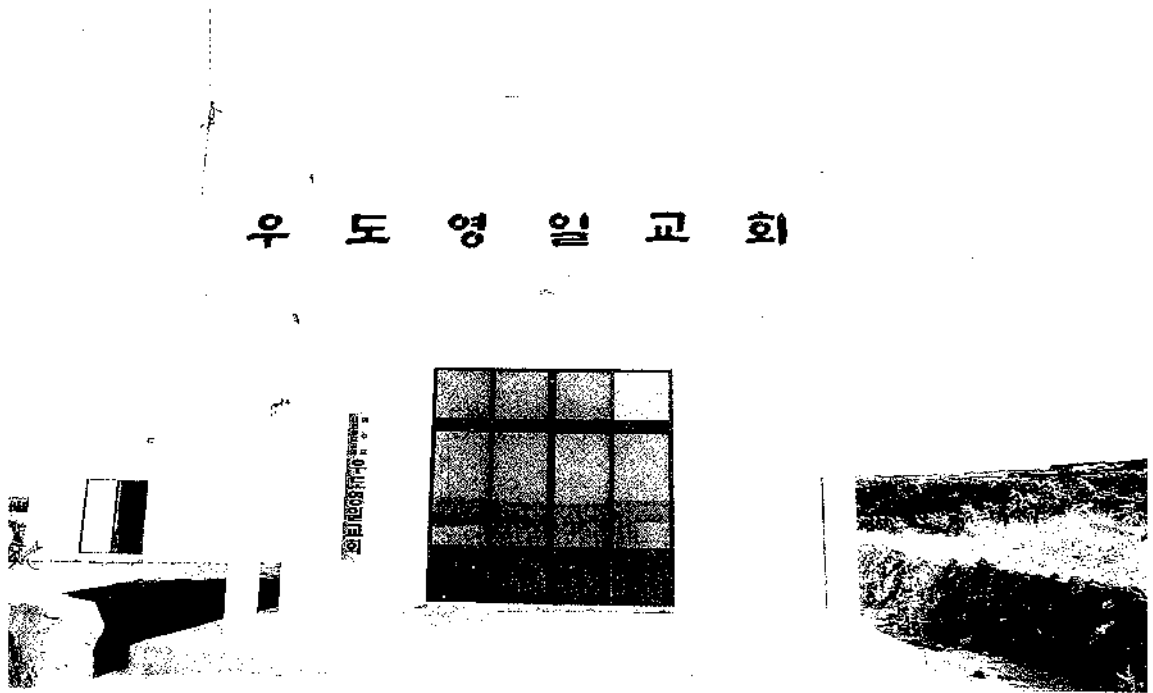
□ 천주교 우도교회



□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도교회



□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우도영일교회



□ 천지대안교 우도분교



□ 堂



▲ 하늘이당



▲ 서낭당



◀ 비양리 돈지당

# 浦 口

□ 牛島港(東天津洞 浦口)



□ 下牛目洞 浦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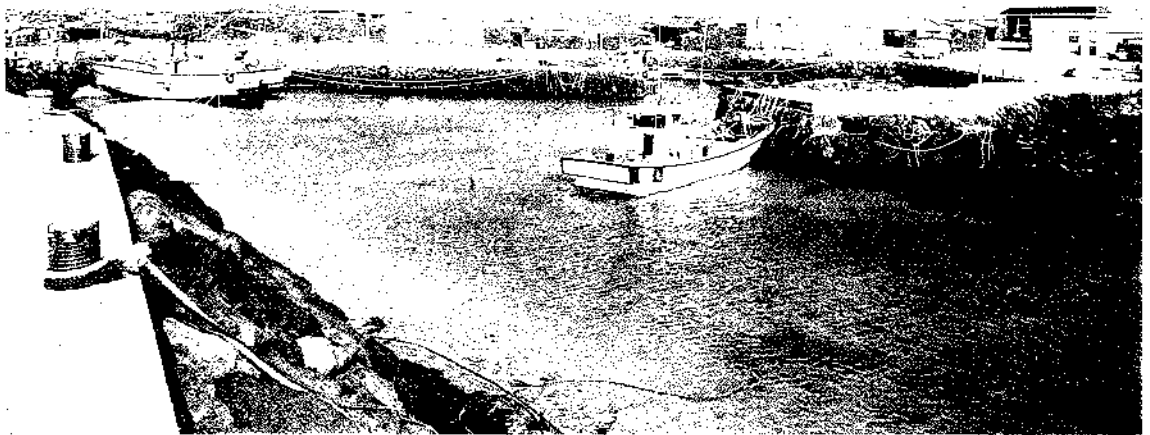
〈浦 口〉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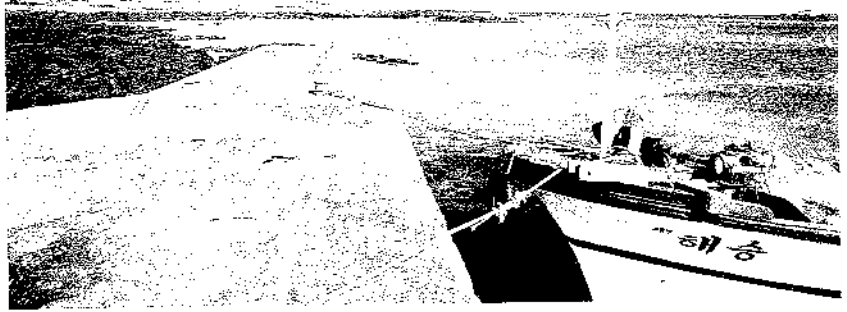
□ 周興洞 浦口



□ 錢屹洞 浦口



□ 下古水洞 浦口



□ 迎日洞 浦口



□ 飛陽洞 浦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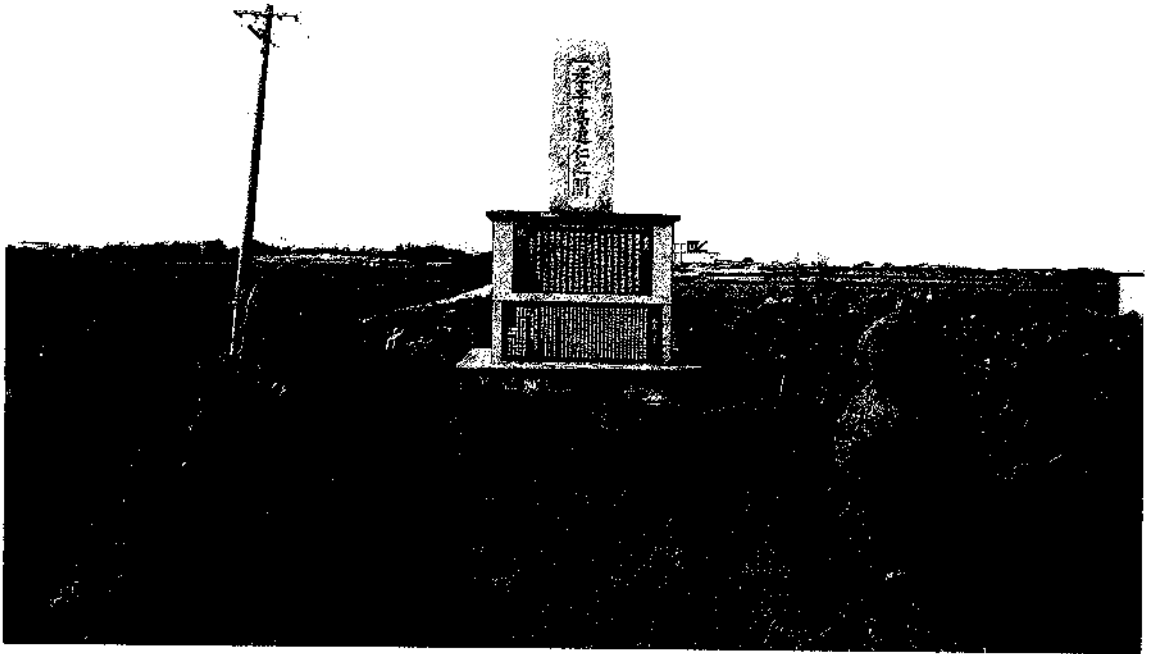
□ 金進士 遺愛碑



□ 功德碑



## □ 高達仁 孝子碑



### 完文(譯文)

이 글을 만들어 주는 것은 일찌기 들으니 어린이가 아버지를 사랑할 줄 아는 것을 나면서부터 타고난 양능(良能)이라 하였다.

이제 高宗辰의 이들이 9세인데 島中에도, 외딴 섬에 태어나서도 하늘이 주신 타고난 良能 이 있어 놀이를 익힐 나이에 능히 孝誠을 다하여 그의 아버지 죽음앞에 실오라기 같은 복숨을 있게하고자 捐血을 거듭 한모금씩 마시게 하였으니 칼날에 끊긴 손가락이 흔적이 너무나 애처롭다.

이를 본 고을 첩보와 마을 보고서를 같이하니 눈으로 보는듯 하다.

즉 이 말을 믿는 것은 소위 어린애가 아버지를 사랑함이 본연의 양능인 까닭이다. 하물며 도민들은 訴訟하기를 좋아하며 스스로 人倫을 저버리는 일을 예사로 하며 눈을 부릅뜨고 사소한 利益을 탐내어 돌아 다니는 판인데…….

한 孝子 침이 나오게 되니 참으로 多幸한 일이다. 視務후에 처음이라 政事를 봄에 仁義 忠孝의 道를 가르침에 있어서 옳고 떳떳한 일이다.

이에 특별히 表彰하는 비이니 牛島동네에서 보고한 이이의 이름은 達仁이라 하였으니 일 후에 身戶의 役을 전례에 따라 堂감하는 뜻을 여기에 完文을 만들어 밝혀주노라.

高宗 6年(1869) 6月 日

當時濟州牧使 趙 義 純(手決)

〈先人の 발자취〉

□ 섬의 젓줄 飲料水



▲ 金進士통

▼ 양평안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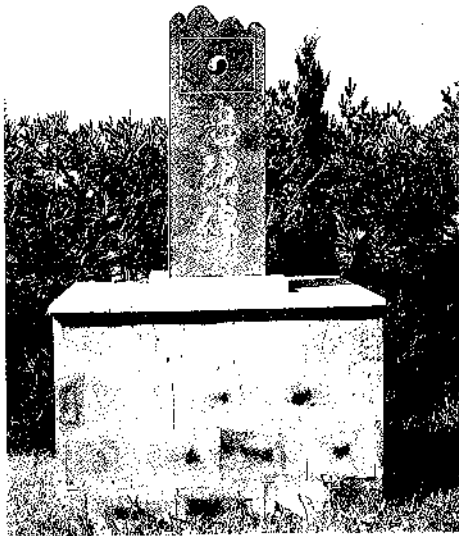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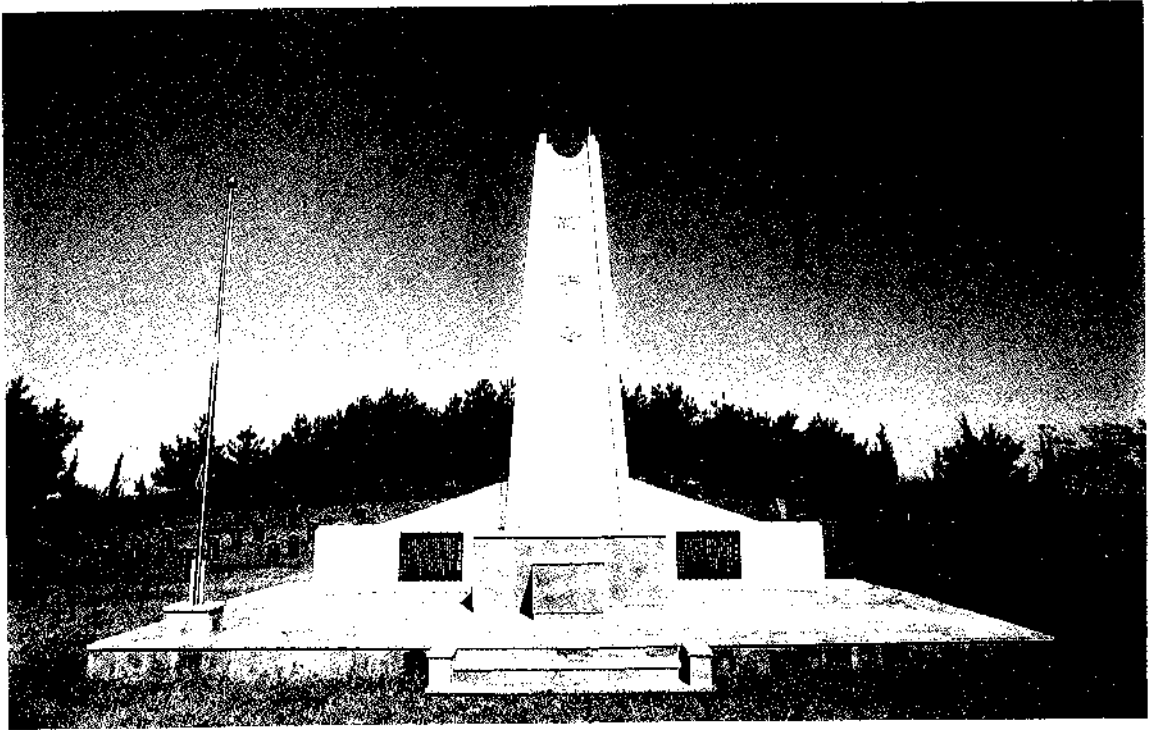
---

□ 고인돌



## 其他施設物

### □ 忠魂墓地



#### □ 현 황 □

- 소 재 지 : 우도면 연평리 1519번지
- 면 적 : 992㎡ (300평)
- 매장기수 : 57기 (군인 56, 경찰 1)

#### □ 연 혁 □

- 1989년 군비 200만원으로 부지매입
- 1989 故 姜斗山씨 子 강영길이 300만원을 투자  
합동충혼비 및 울타리 조성공사
- 1989년 군비 900만원으로 개인비 건립
- 1990년 군비 500만원을 투자 묘지 확장
- 1996년 충혼탑 건립

## □ 貯 水 池



### □ 현 황 □

- 위 치 : 연평
- 준공년월일 : 1991. 9. 30
- 투 자 액 : 1,170백만원
- 저수용량 : 50,400 $m^3$
- 여 과 지 : 250 $m^2$  (2지)
- 배 수 지 : 250 $m^2$  (2지)
- 착 수 정 : 30 $m^2$  (1지)
- 송 배 수 관 : 391m

### □ 담수화시설계획 □

- 총사업계획 : 1,000 $m^3$ /일
- 투자예상액 : 3,049백만원
- 97년 (1단계) 계획
  - 사업량 : 500 $m^3$ /일
  - 사업비 : 2,143백만원
- 2001년 (2단계) 계획
  - 사업량 : 500 $m^3$ /일
  - 사업비 : 776백만원

〈其他 施設物〉

□ 味噌加工工場

(1994년 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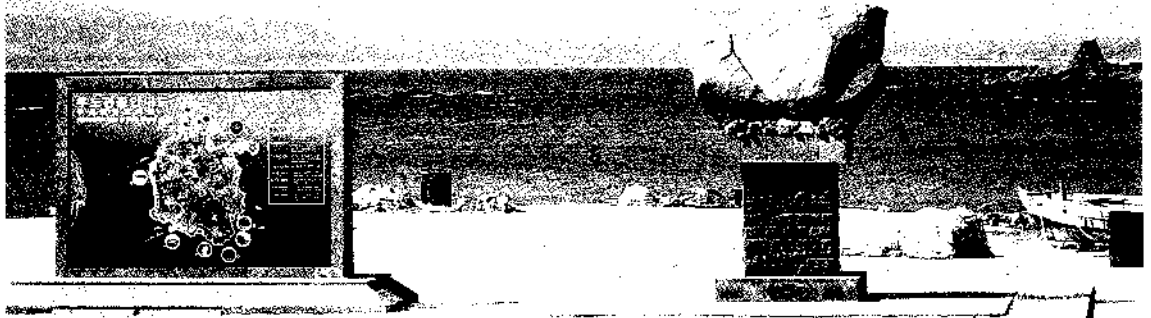


□ 海女脱衣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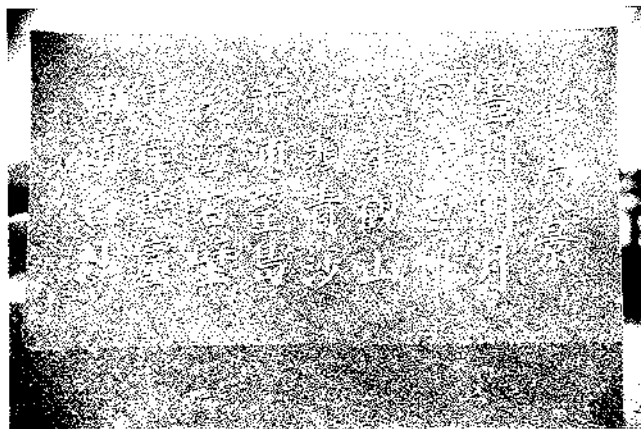


# 主 要 觀 光 地

글 / 金順斗



우도항에 시설된 표지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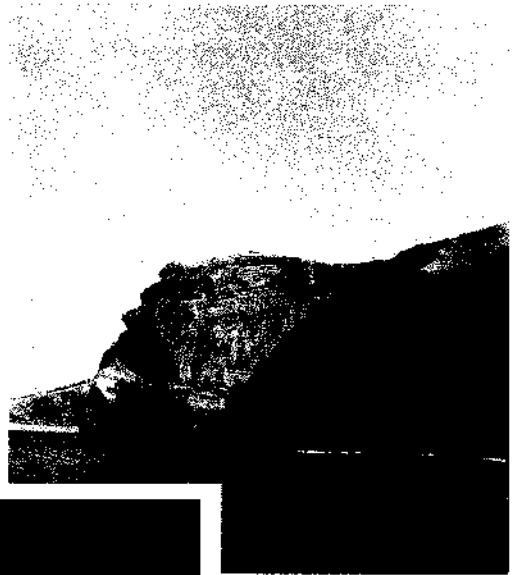
□ 큰 바위 얼굴



시원스런 이마. 눈을 들어  
시선은 먼 데로 향하고,  
콧날 아래로 이어지는  
선이 참으로 당당하다.  
부처를 닮은 귀는 바닷물에  
달을 듯 넉넉하고,  
언젠가 이 광 우도에  
큰 인물이 태어날 것이라는  
전설을 안고 있는 큰 바위 얼굴.  
오늘도 묵묵히 말이 없다.



□ 晝間明月 (달 그린 안)



한 구비 돌아 들어 동굴은  
깊고  
빈 바다에 띄우는  
빛줄기 하나.  
빛은 어둠을 뚫고  
어둠만큼  
다시 일어서는 바다  
진리를 밝히는 등불이고자  
우도에는  
낮에도 달이 뜨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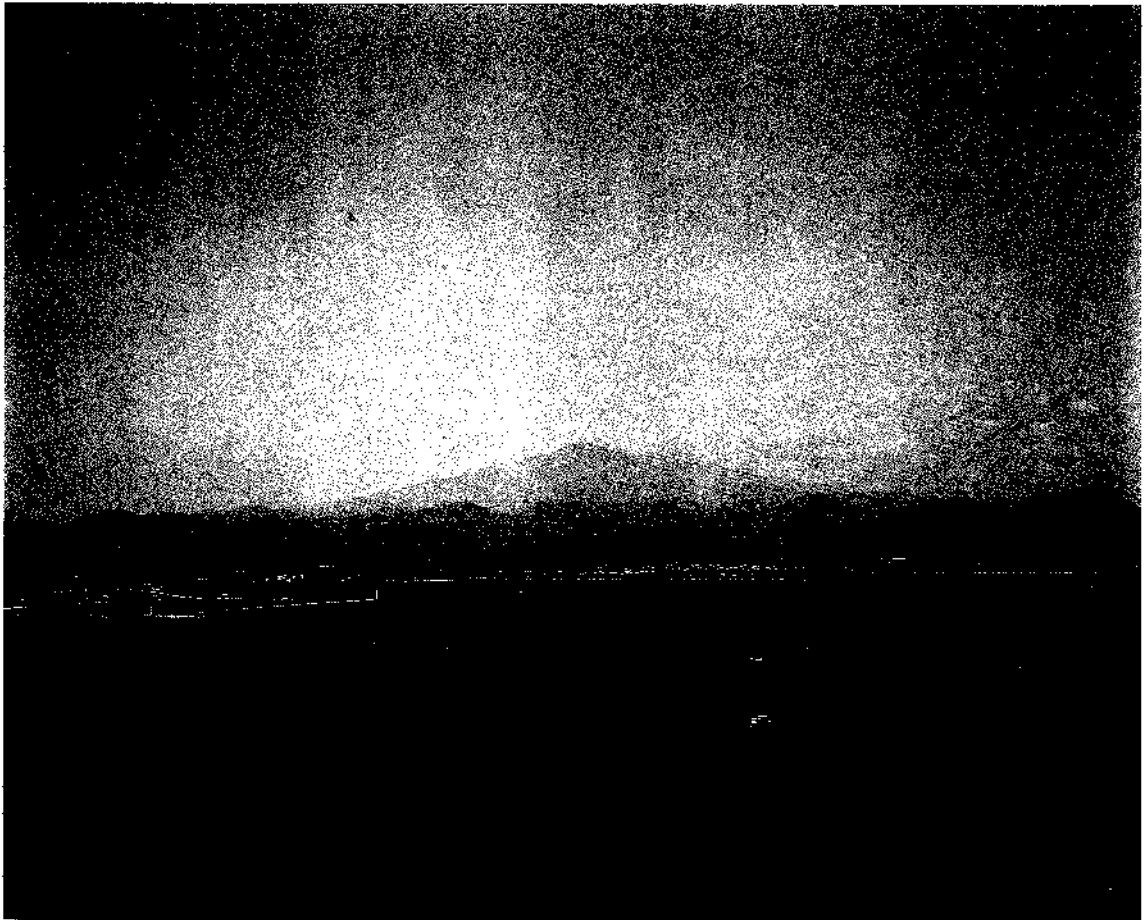
〈主要 觀光地〉

□ 夜航漁帆



밤바다는 빛으로 해서  
어둠을 인식시킨다.  
그만 그만한 배들이  
오징어도 붙이고 갈치도  
뉘는 정경.  
섬에서 바다 건너 다시 섬.  
우도에 사는 사람들은  
“구시 간다”고 한다.  
구시갈때 건너야 하는 바다.  
그 바다에 불배들이 정겹다.  
내일 아침  
호박냉은 갈치국이  
연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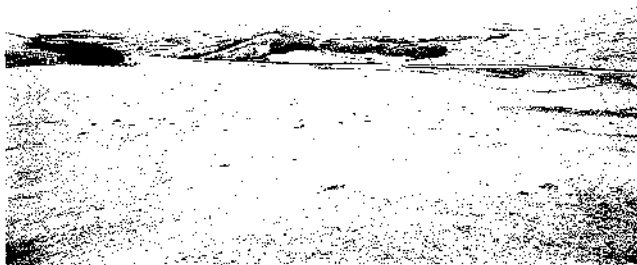
□ 天津觀山



산을 보았는가  
바다건너  
한라산을 보았는가.  
360봉우리를 거느리고  
오늘도 이 나라의  
안녕을 비는  
영주산을 보았는가.  
천진리에 와서  
한라산을 볼 일이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일기를 쓸 것이다.  
“우도에 가서 오늘 비로소  
한라산을 보았다.”

〈主要 觀光地〉

□ 地頭青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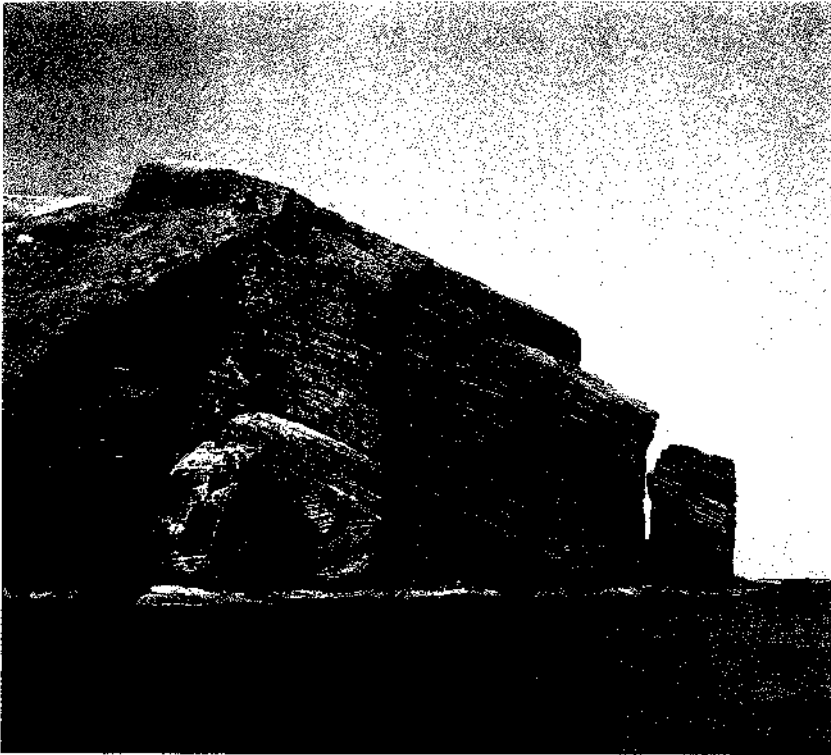
바람이 분다.  
바람보다 먼저 풀이 눕는다.  
민초들이 눕는다.  
망동산에 오르면.  
발이래 펼쳐지는 보리밭.  
그 이랑 이랑 사이로 구비치는  
비단의 물결.  
쇠똥쭉던 소녀들.  
쇠먹이던 소년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아. 바람아 불어라.

□ 前浦望島



우도를 일컬어  
누운 소 같다고 하고.  
물에 뜬 평지라고도 하느니.  
종달리 지미봉 아래  
두문포구에 서면.  
이 말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  
진다.  
충암(沖庵)은 그래서 우도를  
일컬어  
“천년동안 그림자가  
바다속에 잠겼었네.”  
라고 「牛島歌」에서 읊었을까.

□ 後海石壁과 선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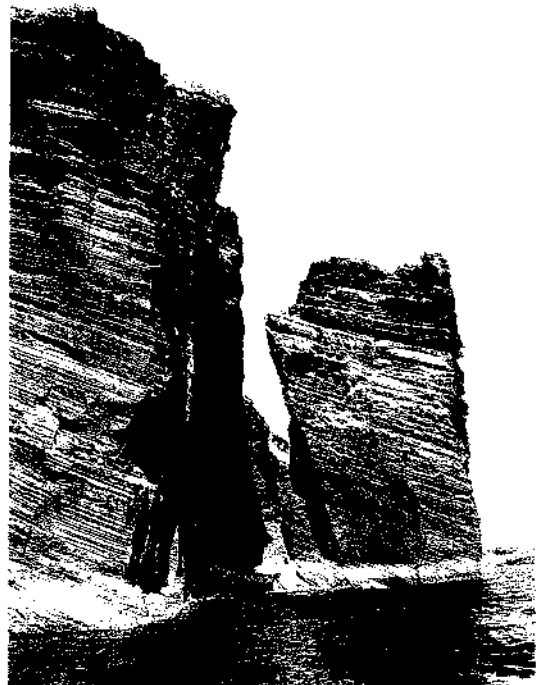


• 후해석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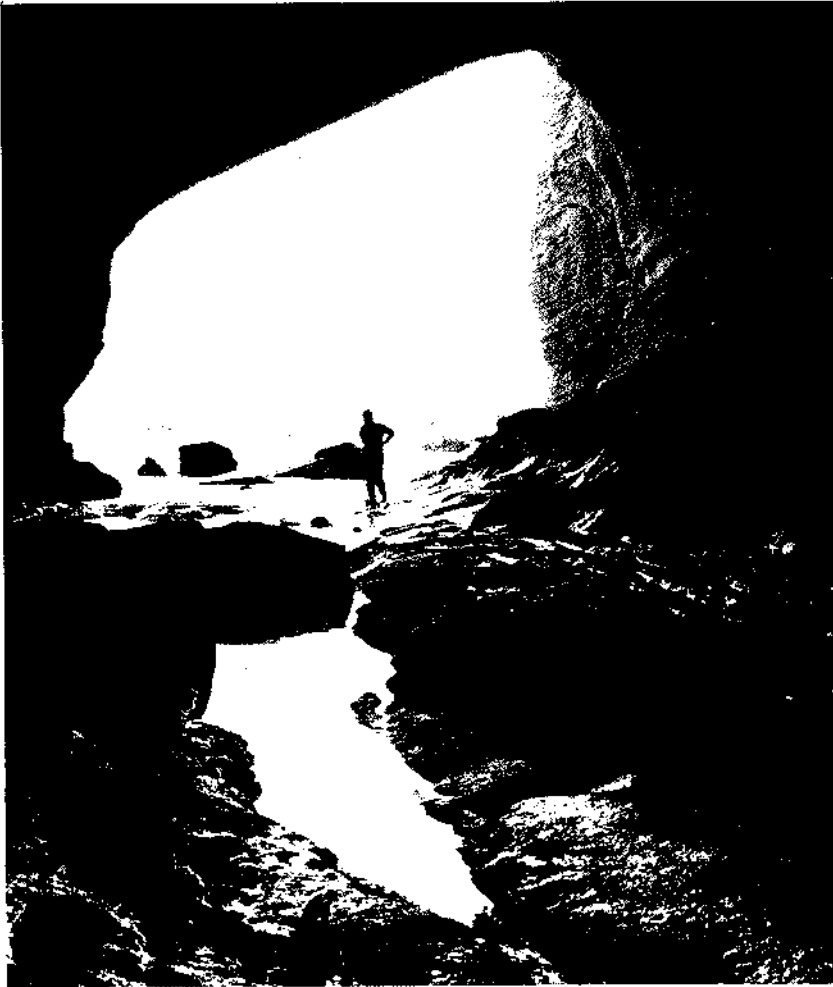
벽을 향해 서다.  
벽은 천길.  
뒷바당에 가서  
석벽을 향해 설 일이다.  
“용서하십시오  
늦게 고향을 찾은 것을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언제도  
고향을 잊은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삼이  
고달팠을 뿐입니다.”

• 선 돌 •

돌이 서다.  
태평양을 향하여 돌이 서다.  
때로는 물결이 와 감싸고  
길 잃은 바다새들이  
쉬어 가는 곳.  
돌이 서다.  
떠오르는 태양을 맞으려  
돌이 서다.  
파도가 비록 거셀지라도  
혼자 서는 돌.  
폭풍이 끝나면 내일은  
어선들이 지날 것이다.



□ 東岸鯨窟



水石인들이 말하는 동굴형이다.  
아니. 동굴이다. 아홉 용(龍)이 살았다는  
동굴속에는 좁지만 모래사장이 있고  
그 아래로 펼쳐지는 누룩빌레.  
맨 발을 물에 담그면.  
무좀 걸린 발이 미안할 지경이다.  
뉘시대라도 드리우면.  
신선이 따로 있다더냐.  
옆에는 소주잔이 있을 일이다.



□ 西濱白沙



모살넷끼에 가서  
고냥이 이빨을 줬던  
유년 시절.  
칠용이. 봉팔이. 순택이. 어진이—  
모래일 마다 동심은 영글고,  
올 여름 수천 수만 피서객이  
될굴다 간 겨울바다엔,  
무수한 사연만  
하늬바람에 쓸린다.  
모래바당엔 넓미역이 자라고  
문어가 집단으로 서식하고,  
이 만큼한 저림이 낚이는 곳.  
셋바람이 분다.  
감태가 오를 모양이다.



# 목 차

<b>권두언</b>	자랑스런 牛島人으로 .....	편집위원장 이 순 형	30
<b>발간사</b>	牛島誌는 貴重한 家寶 .....	편찬위원장 김 향 구	32
<b>축사</b>	우도면의 내일을 밝히는 지침서 .....	북제주군수 신 철 주	34
	우도면의 밝은 내일을 여는 길잡이 .....	북제주군의회회장 강 인 선	36
	牛島誌 發刊은 보람있는 일 .....	면 장 고 창 도	38
<b>제 1 편 자연 환경</b> .....			
제 1 장 지형과 지질 .....			
제 1 절 개 관 .....			
제 2 절 해빈의 특징 .....			
제 2 장 동 식 물 .....			
제 1 절 육상의 동식물 .....			
제 2 절 해안의 동식물 .....			
<b>제 2 편 역사와 유적</b> .....			
제 1 장 역사와 설촌 .....			
제 1 절 목장의 설치 .....			
제 2 절 개간에 대한 진정 .....			
제 3 절 집세와 마필의 처리문제 .....			
제 4 절 개간과 설촌 .....			
제 5 절 이양선의 내박 .....			
제 2 장 유적과 유물 .....			
제 1 절 서 .....			
제 2 절 선사시대의 유적과 유물 .....			
제 3 절 조선시대 및 근대 .....			
1. 망대와 방사탑 .....			
2. 집터와 유물 산포지 .....			
3. 포 구 .....			

4. 기    타.....	149
제 4 절    결    .....	150
<b>제 3 편    사    회    환    경    .....</b>	<b>153</b>
제 1 장    사회구조와 성씨구성    .....	155
제 1 절    사    회    구    조    .....	155
1. 토착성과 전통성    .....	155
2. 생활공간의 범위    .....	157
3. 사    회    조    직    .....	159
4. 직업구조와 계층구조.....	163
5. 계층의식과 공속감정.....	168
제 2 절    성    씨    구    성    .....	169
제 2 장    가    족    .....	176
제 1 절    가족과 가구    .....	176
제 2 절    자료의 성격    .....	178
제 3 절    가족의 크기    .....	179
제 4 절    가    족    구    조    .....	182
제 5 절    가족의식과 행정세대    .....	189
<b>제 4 편    민속과 신앙    .....</b>	<b>193</b>
제 1 장    세시풍속과 민간신앙    .....	195
제 1 절    섬공동체의 특징    .....	195
1. 어    촌    성    .....	195
2. 잠수촌성    .....	196
3. 공동체성    .....	196
4. 여다남소    .....	197
제 2 절    세    시    풍    속    .....	198
1. 세시풍속    .....	198
2. 생업세시    .....	204
제 3 절    마    을    제    .....	209
1. 유교식 마을제    .....	209
2. 당    신    앙    .....	215
제 2 장    어    로    민    속    .....	228
제 1 절    머    리    말    .....	228

제 2 절 어 로 환 경 .....	229
1. 어 장 .....	230
2. 조 류 .....	248
3. 바 람 .....	250
제 3 절 어 로 기 술 .....	252
1. 낚 시 .....	252
2. 그 물 .....	260
3. 채 조 .....	272
제 3 장 종 교 .....	279
제 1 절 불 교 .....	280
제 2 절 천 주 교 .....	285
제 3 절 기 독 교 .....	288
제 4 절 신흥종교 .....	292
제 5 절 끝맺는 말 .....	312
<b>제 5 편 산업과 해녀 .....</b>	<b>315</b>
제 1 장 어 업 .....	317
제 1 절 개 설 .....	317
제 2 절 해양환경 .....	318
제 3 절 어업연역 .....	319
제 4 절 주요어업 .....	322
제 5 절 어업현황 .....	329
제 2 장 우도해에 뜬 도항선 .....	333
제 3 장 해 녀 .....	345
제 1 절 우도해녀와 해녀사회 .....	345
제 2 절 우도해녀의 해외출가 .....	352
제 3 절 문턱진 일행의 청도 진출 .....	360
제 4 절 용궁을 다녀온 만행이 할머니 .....	363
제 5 절 우국청년 강관순이 작사한 해녀가 .....	367
제 6 절 해녀집단의 항일투쟁 .....	369
<b>제 6 편 교육과 행정 .....</b>	<b>379</b>
제 1 장 해방이전의 교육 .....	381
제 1 절 교학의 태동 .....	381

제 2 절	영명의숙의 교학활동	384
제 3 절	사립연평심상소학교	389
제 4 절	연평국민학교	391
제 5 절	우도 3대 천재의 활동	394
제 6 절	문화활동과 계몽운동	398
제 2 장	해방이후의 교육	402
제 1 절	연평중학교 설립을 위한 기성회의 활동	402
제 2 절	60~80년대의 연평국민학교와 “기성회바당”	406
제 3 절	연평중학교의 변천	418
제 4 절	맺 음 말	423
제 3 장	행 정	427
제 1 절	개 관	427
1.	우도면의 위치 및 자연	427
2.	우도 주민의 생활과 경제	429
제 2 절	행정의 변천	432
1.	조선시대	432
2.	일제치하	433
3.	해방이후	434
제 3 절	면 행정	436
1.	기관 및 단체	436
2.	사 회 단 체	438
제 4 절	개 발 사 업	440
1.	도로포장 사업	440
2.	통신 및 전화사업	441
3.	비양동 도리선창 축조	442
4.	1990~1992년 지역개발사업	443
5.	1993년 이후 지역개발사업	445
6.	사회복지사업	448
제 7 편	지 역 개 발	449
제 1 장	개 발 방 향	451
제 1 절	도서지역으로서의 우도	451
제 2 절	우도가 보유하는 자원의 실태와 평가	4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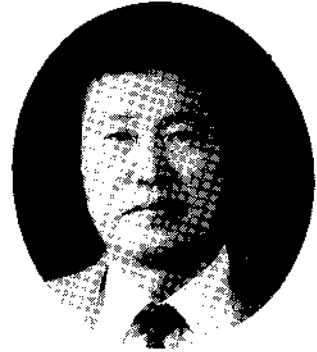
1. 자연 환경 .....	454
2. 인문사회 환경 .....	457
3. 관광자원 환경 .....	466
4. 우도의 자원에 대한 평가.....	469
제 3 절 개발의 방향 .....	473
1. 우도에 적합한 개발철학의 정립 .....	473
2. 성산지역과 연계된 지역개발 .....	474
3.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개발 잠재력 확충 .....	475
4. 관광자원의 개발과 활용 .....	479
5. 체계적인 개발계획 정립 .....	481
제 2 장 주민 참여 .....	482
제 1 절 계획의 목적과 설립과정 .....	482
제 2 절 계획수립의 원칙 .....	488
제 3 절 지역환경 현황 .....	489
제 4 절 주요문제점과 발전의 기회 .....	497
제 5 절 계획안 .....	498
<b>제 8 편 구 비 전 승 .....</b>	<b>549</b>
제 1 장 구 비 전 승 .....	551
제 1 절 전 설 .....	552
제 2 절 민 요 .....	555
제 3 절 속 담 .....	563
제 4 절 속 신 담 .....	567
제 2 장 지 명 유 래 .....	573
제 1 절 서 광 리 .....	573
제 2 절 오 봉 리 .....	582
제 3 절 조 일 리 .....	601
제 4 절 천 진 리 .....	618
<b>제 9 편 島外面民史 .....</b>	<b>631</b>
제 1 장 재경우도면민회 .....	633
제 2 장 재부우도면민의 정착사 .....	638
제 3 장 서부경남 .....	644
□ 도움을 주신 분들 .....	649

## 자랑스런 牛島人으로

수려한 한라산이 그 정기를 펼치고 있는 제주섬의 동쪽, 섬 머리(瀛洲東頭)로 옛문인이 일컬어 온 고장, 우리 우도는 옛부터 한반도 남단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풍부한 수산자원과 제주해녀의 끈질긴 삶의 정신을 이어온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거대한 해식 동굴, 한국 유일의 산호모래사장, 넙미역, 저립 등의 희귀한 해산물, 특이한 민속, 해녀들의 대일 항쟁의 역사 등은 우리 고장만이 지니고 있는 자량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우리 면민들이 이같이 우도팔경과 같은 아름다운 관광자원들을 잘 보존하고 조상들이 펼쳐온 굳건한 삶의 의지와 애국정신을 계승해 이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일은 잘 사는 것 이상으로 우리 시대의 크나큰 책무가 아닐 수 없다. 급격한 산업화의 과정에서 면면히 전승되온 소중한 삶의 모습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오늘, 지나온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미풍양속을 계승·발전시키고 애항심을 돈독히 하는 일은 우리들 모두의 삶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우도는 세계화를 향해 제주도정 차원에서 추진되는 성산권 관광단지의 핵심 지역으로 새롭게 자리매김되고 있다. 이를 볼 때, 역사의 오랜 음지에서 벗어나 햇빛 쏟아지는 벌판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자랑스런 고장으로 우리에게서 희망찬 미래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자신을 보다 정확히 알고 이를 온 국민에게, 세계에 까지 알리지 않으면 안될 역사의 시점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우도지」를 통해 지형, 지질, 지명, 동식물 등의 자연환경에서부터 역사, 가족, 사회구조, 산업, 행정, 교육, 종교, 나아가 해녀, 세시 풍속, 민요, 속담, 방언 등 사회문화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우도의 모든 것을 심층적,



편집위원장 李 淳 玠  
제주대교수

전문적으로 밝혀보고자 했다. 그리하여 우리들이 쓰기보다 관계된 전문 학자들에게 집필을 의뢰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동안 우도지 발간을 위해 이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원로들과의 공청회를 비롯해 원고내용을 검토하는 주민 간담회, 그 결과를 토대로 재집필을 거치는 등 4년여에 걸쳐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 편집해왔으나 혹여 착오나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차후 보정의 기회를 기다릴 수 밖에 없다.

오늘날 7천 여 우리 면민들은 제주, 서울, 부산, 일본 등 해내외에 걸쳐 떳떳하게 살고 있다. 제주관광의 새로운 명소로 매스컴의 집중적 관심이 조명되고 있음을 볼 때 그 잠재력을 우리 모두의 자랑스런 삶으로 바꿔 놓을 수 있어야 하겠다. 구경거리가 될만한 아름다운 명소로 잘 가꾸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잘 사는 마을, 자랑스런 고향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가꾸어 나가야 하겠기 때문이다. 부디 우도지가 우리 자신을 정확히 이해하고 새로운 삶의 지향에 정신적 좌표가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도를 알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면지를 엮은 보람일 것이다.

책을 출간하는데 물심양면으로 협력해 주신 해내의 면민 여러분과 집필위원 및 편집위원 제위, 그리고 훌륭한 책을 만들어 주신 박서동사장님의 노고에 대해 위원회를 대신해 심심한 사의를 드리는 바이다.

# 牛島誌는 貴重한 家寶이며 故郷의 참맛입니다



우도지편찬위원회  
위원장 김 항 구

우리 모두의 숙원이던 牛島誌가 오랜 산고 끝에 드디어 세상에 내보이게 되었습니다. 뿌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은 만물의 본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수구초심(首丘初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사람으로 태어나 그 근본을 모르고서야 어찌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의 동머리이며 또한 관문인 환해(環海)의 고장 우리의 향토 우도는 오랜 풍상과 격랑에 할퀴면서도 수백년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선조들의 얼과 숨결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사회적인 변동의 여파로 미풍양속과 가치관은 점점 달라져가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무엇으로 향토에 대한 애착과 긍지와 자부심을 길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억속에 남아 있는 것은 향토의 선구자이시며 교육자였던 고태주 선생님이 지으신 약사가 전해져왔습니다만은 급변하는 상황하에서 향토의 정신을 담은 뚜렷한 기록이 없음을 아쉽게 여기면서 더 늦기전에 우리의 뿌리를 확고히 가다듬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뜻에서 본 우도지를 출간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지는 내외 향민의 뜻과 정성을 모아 향토의 역사와 문화, 자연과 산업, 인문과 사회 등 전반에 걸쳐 수록하는데 힘기울여 집대성한 향민필독(鄉民必讀)의 향토사이며 후세들에게 전해줄 귀중한 가보가 되는데 손색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본 우도지는 이러한 우리 고장의 역사를 영원토록 보존하고 정다운 고향의 참맛을 알게하며 후세들에게는 뚜렷한 긍지와 희망을 심어준은 물론, 도내외 우리 향민들이 하나가 되어 화합을 도모함으로써 우도면의 거도적 발전에 구심점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돌이켜 보건데 牛島의 탄생은 고려 목종 10년(서기 1005년) 서산용출해중(瑞山湧出海

中)이라고 탐라지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그 시기는 한라산과 비양도 등 제주 본도가 마지막 화산활동이 전개되던 때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牛島가 오늘의 모습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불과 천년이 채 못되는 것이라 하겠습니까만은 지정학상 그 위치나 역사적 배경으로나 그 이름이 쇠섬(소섬)이라고 말해주듯 매우 소중한 보배로운 신비의 고장인 것입니다.

瑞山湧出이라는 瑞字는 물론 상서롭다는 뜻과 새롭다는 뜻, 또한 동쪽을 가리키는 글자이며 셋녜 셋바람 등 옛 한자옥편에는 瑞는 쇠라고 발음한다고 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쇠섬(소섬)이라는 지명의 첫째 유래를 이에서 찾는 것이며, 누워 있는 소의 형국이라는 와우형(臥牛形)을 들쭉 유래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瑞山湧出이 얼마나 장엄하고 신비스러운 표현입니까. 제주 본도를 사방에서 웅위하는 크고 작은 섬중에서 맞춤형인 제1도로서 태풍의 길목 동어귀에 당당하게 서서 수호신으로서 동트는 새아침 환한 햇발 태양의 에너지가 또한 동머리 우도에서 시작되고 있다함은 瑞氣가 充滿한다는 말에서 비유됩니다.

우리는 좌청룡 우백호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좌는 동쪽이고 우는 서쪽을 의미합니다. 동은 청룡이, 서는 백호가 머문다고 하였습니다. 청룡은 매우 상서롭고 조화무궁한 동물로서 구름을 일게하고 비를 내려 만물을 소생케 하는 구세주로서의 용신인 것입니다.

400여년전 충암 김정(金淨)선생은 나이 35세에 제주에 귀양오셨다가(그 이듬해에 36세때 사사함) 우도가라는 시가를 지으시고 오늘에 전하고 있습니다. (탐라록에 기록되었음)

영주동두오변경(瀛州東頭鰲棼傾) 천년민영함중명(千年閔影涵重溟)

(해석) 영주의 동머리는 삼신산이 뻗어 천년의 고운 자태 바다속에 잠겼어라.

이 시는 7언시로서 37구로 되어 있습니다. 충암 김정 선생은 그후 제주 오현(五賢)의 한 분으로 재주시 오현단에 비각으로 모셔져 있습니다.

우리의 牛島가 面으로 승격된지는 불과 10년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도약과 발전의 상승 기류를 타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에는 북제주군의 군정시책이 집중되고, 내외면민의 자조정신의 발로에 연유되고 있습니다. 한편 근래 도외 거주 향민들의 사회진출이 더욱 현저하여 교육계, 언론·방송계 관계 실업계 등에 확고한 기반을 다져 혜성처럼 빛나고 있음을 볼 때 지정학적 의미에서 우도탄생 설화에 열킨 정령(精靈)의 造化性과도 전연 무관하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옥고를 써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면지 편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신철주 북제주군수님을 비롯한 재경, 재부, 재서부 경남면민회와 도내외 협찬 향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지 발간에 애쓰신 편찬위원회와 편집위원회 관련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 우도면의 내일을 밝히는 지침서로서 미래발전에 큰 등불이 되어지기를...

우도면승격 10주년을 맞이하여 면민의 오랜 숙원이던 牛島誌가 발간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본지 편찬을 위해 많은 수고와 정성을 기울여 오신 우도지편찬추진위원회 김항구 위원장님과 이순형 편집위원장을 비롯한 집필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우도면은 우리 북제주군의 동측 끝에 위치하여 제주도 8개 유인도서중 가장 큰 섬으로 1699년 肅宗 25년에 나라에 진상할 소를 기르기 위해 國營牧場이 설치된 이후 땅이 비옥하고 해산물이 풍부하여 1800년초에 이르러서는 사람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하였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300여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우도는 그 형상이 소가 누워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하여 소섬, 물 위에 뜬 두둑이라 하여 演坪이라 불리우기도 했었습니다.

1986년 4월 1일 舊左邑演坪出張所가 面으로 승격되면서 우도는 북제주군의 1개면으로 탄생하므로써 우도면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우도의 산업구조는 반농반어형태로 어업중심형 구조를 띠고 있으며, 일반어업보다는 潛嫂業이 주를 이루고 있어 해녀의 본 고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생존권 투쟁을 위해 분연히 일어섰던 우도해녀들의 항일정신은 근면하고 생활력 강한 제주여성의 표상이 되고 있으며, 우도면 역사에 금자탑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랜 역사와 우도면민의 강인한 개척정신과 불굴의 의지는 오늘의 우도를 있게 한 힘의 원천이 되고 있으며, 특히 우도의 자랑인 牛島8景은 자연경관이 뛰어나며 晝間明月은



복제주군수 申喆宙

제주도의 대표적 명승지로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우도면의 진중한 자연관광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도면은 이제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관광지로 변모하고 있고, 면민들은 소중한 자연환경을 스스로 지키고 가꾸며 부지런히 일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도서지역진흥을 위한 개발사업과 함께 우도면 지역의 물문제를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급수대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므로서 풍부한 수산자원과 천혜적인 자연경관, 부지런한 근면성을 간직하고 있는 우도면의 발전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면승격 1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우도면이 더 높은 비상의 나래를 펴기 위해 2천여 면민의 뜻을 모아 우도의 역사, 문화, 산업, 교육, 행정 등 모든 분야를 총집대성한 우도지를 발간하게 된 것은 참으로 의미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는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도지는 우도면의 과거와 현재를 기록으로 엮어냄으로써 면민화합은 물론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애항심을 심어주고 우도면의 내일을 밝히는 지침서로서 미래발전에 큰 등불이 되어질 것으로 저는 확신해 마지 않습니다.

이무쪼록 이처럼 의미깊은 면지편찬사업을 계획하시느라 많은 애를 쓰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도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우도면의 밝은 내일을 여는 정신적인 길잡이가 되기를...

이번에 우도면민의 오랜 숙원이던 『牛島誌』를 발간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주도 동쪽에 위치한 우도는 도내 유인도중에서 가장 큰 섬으로 기원전인 선사시대에도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도면에서 발견된 선사시대의 유물·유적인 지석묘와 돌도끼, 몽돌 등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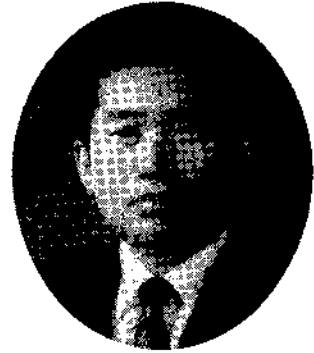
이형상 목사의 남환박물관(南宦博物館)에 따르면 1697년 숙종 23년에 진상에 대비, 말을 기르던 목장이 설치되면서부터 본격적인 주거형태를 갖추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긴 역사를 간직한 우도는 '소가 누워있는 모습'이라 하여 소섬이라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1986년 4월 1일 면으로 승격된 우도면은 우도봉을 기점으로 완만한 평지를 이루고 반농반어의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개척정신, 근면성, 강인성과 항일정신은 오늘날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척박한 땅에서도 고소득 작물을 기르고 잠수업 등 수산자원을 잘 관리하여 어민소득을 높여 나가고 있는 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해녀들이 일제의 경제적 수탈에 맞서 생존권을 지키고자 했던 항일투쟁의 억척스런 삶의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 북제주군의회회장 강 인 선

이렇듯 우도면민은 위대한 저력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우리 우도면은 사회, 문화, 경제, 산업 등 모든 부분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루며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도8경은 보는 이마다 감탄을 자아내는 소중한 관광자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면승격 10주년을 맞는 우리 우도는 21세기의 여명과 함께 새로운 도약의 장을 열어야 할 중요한 길목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도면민이 간직해온 열과 슬기, 전통문화의 뿌리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일은 참으로 의의깊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牛島誌』의 발간은 우리 고장에 대한 최상의 보배요, 문화유산의 발원으로서 후손들에게 역사적 자료를 남기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지가 우도면의 밝은 내일을 여는 소중한 길잡이로서 향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은 물론, 우도면민의 삶의 철학을 담은 역사적 자료로 활용됐으면 더 바램이 없겠습니다.

끝으로 『牛島誌』 발간을 위해 애쓰신 김항구 편찬위원장님, 이순형 편집위원장님, 김순두 편집주간님을 비롯한 집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도면의 영원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牛島誌 發刊은

### 바람직하고 보람있는 일

우도면 승격 10주년과 더불어 우도의 설촌유래 등 우도면민이 걸어온 발자취를 책으로 집대성한 우도면지를 펴내게 된 것을 면민 여러분과 더불어 축하해 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고향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우도면지 발간과 같이 훌륭한 일을 주관하여 향토 역사를 정리하는데 온 힘을 다하여 주신 우도면지 편찬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우도는 지금으로부터 150여년전 김진사 일행이 최초로 입도하여 온갖 사회적 변화를 겪으며 변천하였으며 우리 면민들은 숭한 영욕과 풍상을 함께 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에 와서 우도면지가 탄생하게 된 것은 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웠던 순간들을 오직 인내와 슬기로 극복한 결실의 값진 산물이라 하겠습니다.

내고장의 역사적 전통과 변화, 발전해가는 모습을 올바르게 정리하여 이를



### 면 장 고 창 도

후세에 전승시키는 일은 참으로 바람직스럽고 가치있는 일이며 이는 곧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급격한 산업화, 경제화에 따른 개인주의가 팽배해가는 이즈음, 지난날 고향의 모습과 걸어온 역사를 정리하고 재조명 해 보는 일은 오늘날이 아니고 후손들에게 우도의 뿌리를 찾는다는 의미에서 참으로 뜻깊은 일이며 나아가 우도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훌륭한 자료가 될 것으로 확신해 마지 않습니다.

면민여러분!

앞으로도 면정에 끊임없는 협조와 성원으로 최고와 1등 우도면 건설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도멀지 발간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우도면의 발전과 면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 우 도 가

충암 김정 (1486~1521)

영주 동쪽머리 자라가쳐서 기울어,  
천년동안 그림자가 바다속에 잠겼었네.  
群仙이 上訴하여 五精을 포섭하여  
하룻밤 일을 하니 雷霆소리 요란했네.  
구름개고, 안개걸혀, 갑자기 솟아나니,  
瑞山은 그림같이 王庭에 날아갈듯.  
바다물결 출렁이며 山허리를 씹는데,  
洞天은 널찍하고, 구름빛장 深幽하네.  
높이 솟은 鑿壁은 비단처럼 홀륭한데  
扶桑의 햇빛받아 번쩍번쩍 빛나네.  
구슬처럼 이슬맺어 물방울 떨어지니  
仙界의 구슬이 列聖처럼 박혔구나.  
瓊宮淵 밑바닥은 깊어서 볼수 없고,  
때로 창살틈으로 隱隱함이 엿보이네.  
黃帝의 풍악소리에 해신이 춤을 주고,  
玉簫은 아득히 먼 하늘에서 내려오네.  
무지개는 바닷물 마셔 긴 꼬리 드리우고,  
大鵬은 학과 놀며 나래를 펼치네.  
曉珠는 인간세상 어두움을 밝히고,  
燭龍은 환하게 두 눈을 뜨고 있네.  
驂蜃가 踏鯉하니 모습이 아름답고,  
天吳의 아홉 머리 비틀비틀 가는구나.  
水府에는 百靈이 잡혀서 잠겨있고,  
太陰의 굴속에는 玄機가 멈춰있네.  
仇池와 禹穴은 神의 자취 전하는데  
아깝다 이 絕境이 訛圖를 겪었구나.  
배들이 쳐들어오니 심신이 두려웠고,  
鐵笛불어 蛟龍을 찢는 소리를 들었구나.  
불쑥고 구름 아득해 근심하는 사람이  
돌아와 멍하니 꿈이 깨지 않는구나.  
아, 나는 문지방이 막혀있다 말만하니,  
어찌 신선들처럼 바람탈 수 있으랴.

- 제주풍토록 중에서 -